사진기자의 땅짓

"숨바꼭질? 지진 대피훈련 중이예요"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작은 틈새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게 재미있는지….

장독 뒤, 옷장 속, 대문 뒤 등 작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며 '숨바꼭질'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숨바꼭질의 주무대는 너른 동네였지만, 학교에서도 숨기 놀이는 심심치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흔하게 숨어들던 곳은 아마도 책상 아래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반 친구들 모두가 책상에 엎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쉥'하고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겨야 했던 민방위 훈련 날의 풍경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침묵이 흐르던 창문 밖과는 달리 책상 아래에서는 키득 키득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그렇게 책상 아래 세상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지난 23일 화순초등학교에서 만난 이 학생은 꼭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진에 대비한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라지만 지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은 놀이를 하듯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쓰촨성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중에 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려 100여명의 아이들이 눈물 속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덩그러니 책가방과 신발만 남기고 떠난 아이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학부모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난 아이들이 천국에서는 천사처럼 행복하기를 빌어봅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리빙 센스

타입에 따른 피부 관리 ②민감성 피부

■ 복합적 특성

건성과 지성의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민감성 피부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되기 힘들고 탄력이 떨어지는 만큼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

■ 자극 없는 세안

과도한 클렌징이나 팩은 피하고, 비누 사용은 절대 금물. 가급적 클렌징폼을 사용하고 세안 후 찬물로 마무리해 피부에 탄력을 준다.

■ 신중한 화장품 선택

화장품은 무알코올, 무향료 제품을 선택하고, 팔뚝 안쪽에 발라보아 따갑거나 당기지 않는지를 미리 확인한다.

■ 천연팩

각질 제거제나 스크럼 사용은 자제하고, 얼굴에 가제를 씌운 후 사과나 계란 등의 천연팩을 해주는 게 좋다.

■ 자외선 차단제

햇볕 등 외부 환경에 예민하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

I love MY student

황소, 토끼 되다

이종옥

"선생님, 호범이 피나요."

교무실로 한 학생이 달려오며 소리친다.

'아~~ 또 사고구나' 직감하며 교실로 달려가보니 호범이의 발과 종아리가 피범벅이다.

체육시간이 끝난 후 아이들이 교실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가는 동안 호범이는 교탁을 가로지르며 달려간 것이다. 한 발이 교탁 중앙의 유리를 뚫고 그 속의 컴퓨터를 넘어뜨렸다. 이처럼 호범이는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황소였다.

3월 초 전주에서 전학 온 호범이는 거의 매일 사고(?)를 쳤다.

선풍기 청소를 하면서 선풍기 날개를 부러뜨리고, 자리에 앉다가 의자가 부서지기도 하는 등 이런 사고는 악의가 있는 사고가 아니라 힘 조절이 안돼 일어난 사고였다.

호범이는 온몸이 탄탄한 근육덩어리인데다 감정조절도 잘 안 되었다. 툭 쳐도 약한 친구는 그냥 넘어졌다. 화해하라고 악수하고 포옹을 시키면 너무 꼭 껴안아 안기는 아이가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화를 내기보다는 살살 달래었다.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너를 믿는다. 그 힘을 좋은 일에 써라"라고 말했다.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상담을 해 주었다. 편지를 써서 주기도 하고 어머니를 만나 의논하기도 했다.

2학기가 되면서 점차 호범이는 온순해지고 힘을 좋은 일에 쓰기 시작했다. 교실에서 창고로 TV를 옮기는 일, 무거운 도서를 옮기는 일에는 가장 앞장서서 했고 청소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자세도 바르게 변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황소 같던 아이가 토끼처럼 귀엽게 행동했다.

이 글은 2학년이 된 호범이가 5월 15일 스승의 날 보내온 편지다.

'선생님! 저는 2학년 되어서 철도 많이 들고 사고도 많이 치지 않고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제 행동을 고쳐주신 선생님의 은혜는 성인이 되어서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성인이 되어서 꼭 큰 선물을 사서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 뵙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달려와 인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찾아오기도 하는 제자다.

교사의 인내와 작은 보살핌이 한 송이의 '사랑초'를 꽃 피울 수 있다.

전체를 그려서 천문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허셜(W. Herschel)은 "나의 사랑하는 벗이여! 우리가 죽을 때에는 우리가 태어난 때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고 떠나야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무엇이 성공인가'란 시에서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지는 것 -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했다.

교정에 연분홍의 '사랑초'가 가득하다. 이처럼 이 세상에도 '사랑초'가 가득하길 바란다.

〈문흥중학교 교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7일(음 4월 23일 丁卯)

子 36년생 주변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온다. 48년생 흉은 가고 길사가 접근 하니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 60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형상이다. 72년생 원거리 여행은 조심해서 행하라. 84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39

丑 37년생 생활에 만족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49년생 풍류에 휩쓸려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61년생 이성에 빠질 수니 정신을 차려라. 73년생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다. 85년생 바람이 일어날 수니 중정하며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1, 26

寅 38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시비가 발생한다. 50년생 남의 말을 꼼꼼히 살펴보라. 62년생 득보다 실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손실이 걱정된다. 74년생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8, 35

卯 39년생 시기 질투 모함으로 손실이 우려되니 적극 참여는 조심하라. 51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는 못 간다. 63년생 배우자편에 불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75년생 수족을 살펴보고 관리에 힘쓰라. 행운의 숫자 : 04, 32

辰 40년생 생기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니 준비하고 있으라. 52년생 욕심은 금물이다 차분하게 점검하라. 64년생 부부간에 언쟁이 발생하니 오늘은 참아보라. 76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손재수가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06, 44

巳 41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에 신중 하라. 53년생 협조자가 안 보이고 혼자서 외로우니 주변인들에게 베풀어라. 65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영전 경사가 있을 수다. 77년생 일이 즐겁지만 마무리가 아쉽구나. 행운의 숫자 : 02, 28

午 42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 찾아 집중하라. 54년생 협조자가 생기나 신사는 피하고 선길후흉으로 간다. 66년생 좋은 매너가 좋은 관계를 만드니 베풀면서 보내라. 78년생 희망찬 설계로 모든 일이 순행한다. 행운의 숫자 : 23, 43

未 43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 준비를 잘하라. 55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하리로다. 67년생 병약한 길목이니 피곤이 중해질까 두렵다. 79년생 사기에 엉킬 수니 신중하게 움직여라. 행운의 숫자 : 1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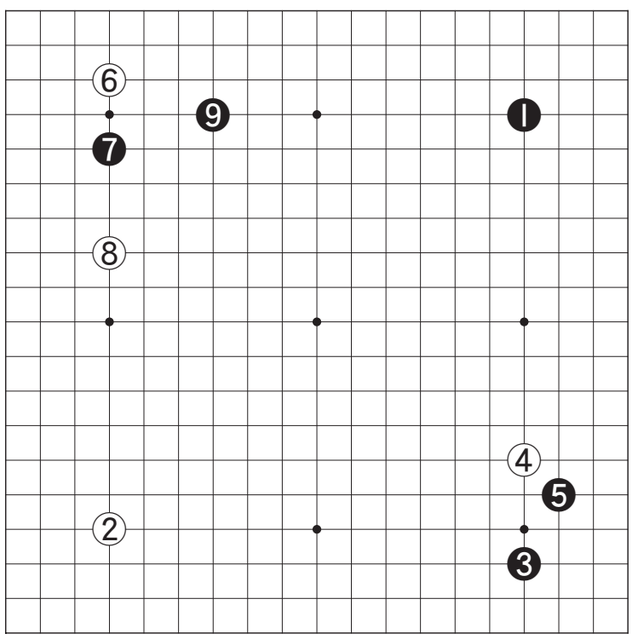
申 44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날아간다. 56년생 복이 흉으로 되니 숙고하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68년생 흉이 복으로 변한다. 80년생 자신의 불편사가 주변에까지 미치니 혼자서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2, 42

酉 45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오니 옛 정을 유지하라. 57년생 생소한 길목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과감하게 결정하라. 69년생 부부간에 갈등이 변동으로 나타난다. 81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에 활동을 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 13, 16

戌 46년생 겉 다르고 속 다른 주변인이 방해를 도모한다. 58년생 형제 수하인으로 인해 불편사가 발생한다. 70년생 문서와 재물이 새롭게 생겨나니 고맙게 생각하라. 82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행운의 숫자 : 19, 41

亥 47년생 괴롭히던 사람이 협조자로 변하니 흉변복화로다. 59년생 과욕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실도 챙겨야 할 것이다. 71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로다. 83년생 고목회춘의 기쁨은 신뢰만이 얻는다. 행운의 숫자 : 24, 3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7회 광일배 직장대항 1회전 1국

직장바둑대회 개막 1보(1~9)

白 허우석 (북구청) 黑 박광주 (포스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17회 광일배 쟁탈 직장바둑대회가 총 10개팀 3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4일 한국기원 광주남구지부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대회방식은 전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한팀 3명 선수가 3개조로 나뉘어 4회전을 치르게 되며 총승수가 가장 많은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또 각조의 우승자는 와일드카드 한명과 함께 자동으로 개인전 4강토너먼트 진출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 바둑은 재작년 우승팀인 포스코의 박광주 주장과 예년 광주광역시청 주장으로 수차례의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직장바둑계의 터줏대감인 북구청 허우석 주장의 대결이다.

허우석 5단은 북구청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북구청 소속으로 출전했는데 과연 옛날처럼 맹위를 떨친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백 4로 걸쳐놓고 6을 차지한 것이 특이하며 9까지는 평범한 진행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바둑소식

윤준상 전자랜드배 16강 진출

윤준상 7단과 윤혁 5단이 제5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16강에 진출했다.

윤준상은 26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32강 경기에서 안영길 6단을 상대로 불계승을 거뒀다. 윤혁도 현무왕전 우승자인 서봉수 9단을 불계승으로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윤혁은 과감하게 중앙 흑 대마를 공격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로써 윤준상과 윤혁은 16강에서 서로 다투게 됐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이며, 상금은 우승 5천만원, 준우승 1천800만원이다. 이어지는 경기는 6월4일 김수장 9단과 박영훈 9단의 32강전 대국.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68>

Do you want to see it?

보여줄까?

A : I bought a new stereo last night. Do you want to see it?
B : Why didn't you fix the old stereo?
A : It's just too old. Besides, I wanted to get something that played CD.
B : I hope you got a good one.

A : 어젯밤 새로운 스테레오 제품 하나 샀어. 보여줄까?
B : 그 이전 제품은 왜 수리를 하지 않았던 거지?
A : 그것은 정말 너무 낡았어. 게다가 CD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하고 싶었거든.
B : 좋은 제품을 샀기 바래.

* 왜 저녁 식사를 들지 않은 거야?
= Why didn't you eat dinner?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68>

噂(うわさ)をすれば影(かげ)ですね。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군요

A : このキャビネット重(おも)くてびくともしませんね。
B : 書類(しょるい)が詰(つ)まっていますからね。
A : 力持(ちからも)ちの大木(おおき)さんがいれば動(うご)くかもしれませんよ。
B : あっ、大木(おおき)さんだ。
噂(うわさ)をすれば影(かげ)ですね。

A : 이 캐비닛 무거워서 꿈적도 하지 않는 군요.
B : 서류가 쌓여 있으니까요.
A : 힘센 오오끼 씨가 있으면 움직일지도 모르겠군요.
B : 앗, 오오끼 군이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군요.

びくともしない : 꿈쩍도 않다
詰(つ)まる : 가득 차다, 잔뜩 쌓이다
動(うご)く : 움직이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45>

很干净。

매우 깨끗하다

A: 河水干净不干净?
héshuǐ gānjìng bu gānjìng
B: 很干净。
hěn gānjìng
A: 从这里到河边远不远?
cóng zhèlǐ dào hébiān yuǎn bu yuǎn
B: 不太远。
bú tài yuǎn

A: 강물은 깨끗합니까?
B: 아주 깨끗합니다.
A: 여기에서 강가까지 멉니까?
B: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干净 [gānjìng] 깨끗하다
远 [yuǎn] 멀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85>

罷露臺(파로대)

파할 파, 드러날 로, 대 대

파로대(罷露臺)의 노대(露臺)는 사방을 바라보기 위한 높은 건물(建物)로 관청 등의 큰 건물(建物)을 뜻하는데, 요즈음은 양옥집의 이층에 난간만 있고 지붕이 없는 '테라스'나 '발코니' 부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파로대'란 관청건물인 '노대' 짓기를 그만두게 하였다는 말로, 왕이 민정(民政)을 살펴 바른 정치를 펼치는 것을 비유한다.

이 말은 중국의 명군(名君)으로 통하는 한(漢)나라 문제(文帝, BC180~BC157)에게서 유래한다. 문제가 노대(露臺)를 지을 마음으로 설계를 시켰더니 예산으로 백금(百金)이 들겠다고 하였다. 백금은 중산층 열 집의 재산과 맞먹는 돈이었다. 황제는 자신을 위해 그런 큰돈을 쓸 수 없다고 토대 짓는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것이다.(史記, 孝文帝紀)

이 고사를 접한 조선시대의 이익(李翊, 1629~1690)은 "옛 풍속의 절용함을 볼 수 있다. 만승(萬乘)의 군왕으로도 비용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니, 이것이 온 천하를 부유하게 만든 까닭이었다."(星湖僿說)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한 문제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로대'라고 한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